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지금 당신 발밑의 제비꽃

지구에는 다양한 키의 식물이 살아간다. 바다에 불어 나는 팽이밥부터 그보다 조금 큰 꽃마리와 꽃다지, 민들레, 개나리, 상수리나무 그리고 10미터 이상의 수고를 가진 전나무와 거삼나무까지. 이 식물들을 기록하기 위해 나는 가만히 서서 개체를 내려다 보기도 하지만 땅에 붙어난 개체를 따라 몸을 누기도, 나보다 부쩍 큰 나무를 기록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기도 한다. 무언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상과 같은 높이에 시선을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감각만으로는 대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식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힌 채 관찰하고 있으면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식물이라도 발견한 줄 아는지 내 겉으로 조심스레 다가와서 묻는다.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특산 식물이나 멸종 위기 식물처럼 귀한 종일 때 사람들은 내 곁에 다가와 나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주 흔한 식물일 때 사람들은 이내 나를 이삼한 사람 취급하고 자리를 뜬다. 제비꽃을 찍을 때 흔히 겪는 일이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제비꽃은 숲과 들을 넘어 도심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이다. 갈라진 시멘트 틈 사이, 바위와 콘크리트 위, 벽돌 사이 등 뿌리를 내릴 만한 흙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제비꽃은 살 수 있다. 이렇듯 도시에 최적화된 식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

니 사람들은 제비꽃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다. 제비꽃속 식물들이 분포가 넓고 개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비꽃속 모든 종의 사정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제비꽃속에는 40여 종이 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우철 선생은 우리나라에 38종 2변종의 제비꽃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창복 선생은 대한식물도감(2006)에 43종을 기재하였다. 제비꽃속은 북부 고산지대부터 남부 해안지대까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며, 남산제비꽃처럼 분포지가 넓은 종도 있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도 있다. 낚시제비꽃, 애기낚시제비꽃, 긴잎제비꽃, 자주잎제비꽃 등은 전라, 경상남도, 제주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경기 북부에 사는 나는 이들을 보기 힘들다.

백암산에서 긴잎제비꽃을 처음 본 때를 기억한다. 잎의 길이가 얼마나 길면 이름에 '긴잎'을 넣었을까 생각해왔는데, 발견 후 생각과 다른 형태에 조금 놀랐다. 긴잎제비꽃은 긴잎낚시제비꽃의 준말이며, '긴잎'은 낚시제비꽃의 잎보다 길다는 의미였다.

봄과 여름, 경기 북부내 내 작업실 주변에서는 호제비꽃과 흰제비꽃, 남산제비꽃, 서울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제비꽃이라고 다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종일지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잎의 형태와 크기, 꽃의 색과 줄기의 길이 등이 다르다.

그래서 식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내게 제비꽃은 유난

히 다루기 까다로운 식물이다. 식물 세밀화는 종의 특징을 드러내야 하는 그림인데, 제비꽃은 교잡이 잦아 종을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환경 변화가 무척 다양하여 종의 특징을 잡아내어 기록하기까지 지나는 모든 단계가 어렵다. 이들을 향한 나의 고민은 제비꽃을 더 오래 도록 들여다보게 만든다. 식물 기록자에게 제비꽃은 쉬이 지나쳐도 되는 식물이 아니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일본의 식물 애호가인 야마다 타카히코씨는 55년간 일본 각지를 돌며 관찰한 자생 제비꽃 60여 종의 기록을 모아 최근 제비꽃 도감을 출간했다. 그는 제비꽃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중국·러시아·스페인·호주·북남미 등 세계 곳곳을 탐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토록 열정적인 제비꽃 연구자들에게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귀한 식물도 많은데 왜 굳이 제비꽃을 보러 그 멀리까지 가느냐 냉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구에는 보전이 시급한 식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식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인간이 매기는 순위일 뿐, 식물 사회는 서로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 각자의 발밑에 피어나기 시작한 제비꽃을 향해 한 번쯤 무릎 꿇고 들여다보는 성의,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이 아닐까 싶다.

<식물 세밀화가>

社說

5·18 기념행사 또다시 '반쪽' 대선 안 된다

올해 5월에 열리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20여 년 만에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행사의 주요 참가 단체인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기념행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정부 주관 기념행사와는 달리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세 개 5·18 공법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다. 전야제를 비롯해 5·18 당시를 재현하고 영령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통해 대중 세상이라는 오월 정신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올해 기념행사는 2000년대 초 이후 20여 년 만에 세 개 공법단체 가운데 두개 단체가 배제된 채 열리게 됐다. 기념행사위원회는 그제 대표자회의를 통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두 단체는 기념행사위원회를 선언하면서 해체를 요구했다.

내분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추

진한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에서 비롯됐다. 두 단체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동지회의 진정한 사과 없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기습적으로 참배하고 대국민 공동 선언을 진행한 탓이 크다. 초청 행사의 명분으로 용서와 화해를 내세웠지만 사과와 반성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요즘 정치권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5·18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월 단체인 내분은 자칫 역사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분의 원인을 제공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먼저 지역사회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반쪽 기념행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타당성 없는 '실적 쌓기' 조례 제정 언제까지

전남도의회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보류 또는 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필요를 고려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의원들의 '실적 쌓기 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원 22명의 동의를 얻어 '전남도의회 시·군 지역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민원 상담소를 22개 시군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때 조례 내용이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법연구팀의 검토 의견과 도의회 홍보용 상담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전남도의원 61명 중 4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전남도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도 지난달 임시회에서 실효성과 이종 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다. 국방부가 이미 실손 의료비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중복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는데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은 조례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조례안 발의 건수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의식해 너도나도 편수 채우기에 급급하는 것이다. 상위법 개정 때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에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앞다퉈 서명하는 것 역시 실적 쌓기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가운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원이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돼 사문화되는 가 하면 다른 지자체 배기시 조례 제정 형태도 여전하다. 이젠 양에 대한 집착보다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2023 갑상선질환 진료 지침'



양태영 태영21병원 원장 대한갑상선학회 개원의협의회 이사

진중 치료의 시작, 유지 및 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표준 치료, 임신과 연관된 갑상선질환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갑상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저장하고 혈액 내로 분비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자기 몸, 즉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생겨 스스로 갑상선을 외부 물질(균)로 착각해 공격하는 항체를 자가 항체라고 부르고 이런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 이상의 대부분이 이 자가 면역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인 그레이브스병, 저하증의 대표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 갑상선질환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며, 심장이 빨리 뛰고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또한 손 떨림도 흔한 증상이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저하증) 대사 속도가 느려져 추위를 못 견디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다. 위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발생하며 기억력 감퇴도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약물 요법, 방사성 요오드,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보완적이다.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은 약물 치료를 선호하고 미국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1차로 선택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원인에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신지록신드(혹은 신지록신)라는 약제인데 이 약제는 용량 조절만 잘하면 평생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여성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유즙 분비 호르몬과 갑상선 기능 검사다. 그리고 갑상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젊은 여성의 고민은 '혹시 불임이 되지 않을까?' '약물 복용 중 임신을 해도 되는가?' 라는 것이다. 실제로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임신이 잘 되지 않지만 치료를 적절히 하면 불임이 되지는 않는다.

갑상선은 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갑상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다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치료를 소홀히 해 여러 증상을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 치료제는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한 약이므로 오래 먹더라도 안심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갑상선은 임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다르고 같은 환자에서도 초치료와 재치료 가 다를 수 있다. 이 같은 다름을 전제로 환자 개인의 증상 호소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경과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환자와 상의 하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고

봄봄봄



김목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겨울과 봄 사이의 계절인 환절기에 세상을 뜨는 분들이 다른 계절보다 많다. 환절기는 계절이 바뀔 때나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때이다. 이 시기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며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다. 또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니 한겨울보다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 발진이나 비염과 같은 만성 질환의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쉽게 피로하여 장시간 운전이 졸음도 주의할 때이다.

환절기처럼 계절이 바뀌듯 인생사와 세상사도 자연스레 바뀌는 게 순리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바람을 재촉도 하니, 그걸 자업자득, 호된 말로 인제이다. 또 하늘의 뜻에 따르면 흥하고 거스르면 망한다는 '순천자흥(順天者興) 역천자망(逆天者亡)'의 재앙이 되기도 한다. 영산강의 이름은 고려 개국 무렵에 금강이었다. 그 금강이 영산강이 된 것은 조선 초에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창인 영산창이 영산포에 있어서이고, 또 왜구를 피해 흑산도 아랫섬 영산도 사람들이 옮겨 온 때문이라고도 한다. 더하여 다시 고을에 있었다는 영산서원의 이름이 된 영산 면서리와 정 노인의 이야기도 있다.

이 영산강의 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영산강 하구엔 이 없고, 승천보 죽산보도 없으며 광주 등지의 오패수가 많지도 않던 때이다. 그 무렵에는 영산강 하구에서 나주 회진에 이르기까지 금세 잡은 장어가 한 소쿠리이고, 너른 갈대밭과 강변 논에는 참깨가 지천이었다. 또 12월부터 3월에 불화로 먹는 새우처럼 생겼

으나, 곤쟁이과의 갑각류인 '곤쟁이'가 있다. 이 '자하' '제하'라고 하는 곤쟁이는 1519년 기묘사화에 조공조를 죽인 남궁과 심정의 이름을 따 '곤쟁이'라 한데서 유래된다는 말도 있다. 또 4월이되면 갈대 고기인 위어가 갈대숲에 알을 낳으러 모여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어' '웅어'라고 했다. 이 무렵 북어도 먹이던 개와 새우에 흘러 영산강으로 왔다가 그만 밀물에 밀려 나주 노안 북바위까지 동동 떠왔으니, 뜰채로 건지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영산강의 손님을 다시 옛 봄을 되찾기 전까지는 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옛 강을 잃고 옛 땅까지 잊었지만,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것은 수돗물 대량이었다. 곧 동북수원지가 바닥이 나고 격일제 급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 중의 심각한 걱정이다. 앞친 데 달친다고 덕남정수장 사고도 예견된 인재이고, 오래전에도 겪었던 참사라고 한다. 강기정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가뭄과 갈수가 천재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늘 쳐다보며 샅대질이나 할 순 없지 않은가? 또 어리석게 비가 내릴 때까지 구우제를 지낼 수도 없는 일이다. 아무튼, 봄이고 봄봄봄이다. 지금 눈앞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잘 살피면 살피면 되고, 대책을 잘 세우면 세워봄이고, 이겨내면 이겨봄, 마침내 극복하면 지난 봄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 봄을 잘 맞이하고 잘 지내고 잘 보냈으면 한다.

無等鼓

고층 아파트를 철거·해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경제성이자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부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가 넘쳐 재건축의 이익이 기존 아파트의 철거·해체, 거주민 보상, 업체의 수익 등을 감당하고도 남아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면 입주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모두 업체들이 참여해 두 배로 높이고 촘촘하게 다시 지었다.

고층 아파트 유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만이 아니라 허가해 줄 때 역시 지자체가 살펴야 할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주민 또는 주민의 재거주, 공사에 따른 주변 피해, 지나친 고층 개발로 인한 경관 침해, 업체 수익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높게만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는 분양이 끝나면 개발 이익만 챙기고, 사후 책임은 입주자와 지자체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부실 시공으로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화동동 아이파크는 39층이다. 광주 곳곳의 좁은 도로에 고층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다. 공사 중에도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해체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게다가 우리나라 기술로도 할 수 없다고 한다.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고층 아파트들이 광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가 됐다. 오죽했으면 민선 7기에 아파트 30층, 상업시설 40층으로 높이를 제한했는가. 건설업체들이 로비와 압박을 통해 계속 추수를 높여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했기 때문 아닌가. 광주에서도 부동산을 볼 수 있게 하지는 광주시의 약속은 공명불이 된 지 오래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발표한 높이 규제 해제는 잘못이다.

지금까지 광주시장, 도시국장 등 관료들,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이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을 광주에 남겼는가. 또다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